

설명절 종합대책 추진 만전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서민생활 안정화 총력

무주군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중점관리 10개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간 청내에 종합상황실(8개 반 32명)을 마련해 코로나19, 교통과 재해재난, 쓰레기 상하수도, 의료와 가족방역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무주군은 비상진료 및 청결 등 귀향객을 비롯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갑소한 설명절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소의계층과 함께 하는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한다.

설 명절을 전·후해 국토 대 청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구제역과 시 등 가족방역에 대한 상황을 유지하는 데도 총력을 쏟는다.

활상을 운영하고 비상근무를 편성해 쓰레기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밖에 소년·소년가장을 비롯한 무의탁 노인 등 소의 계층에 대한 위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불우시설과 가정에 대한 위문과 결연 등 후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연휴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겠다"라며 군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휴기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군민들의 다중집합 장소 방문 자제 등 지속적인 거리두기 동참을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올해 4개 신규 사업을 비롯해 총 14종의 원예특작 분야 군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높인다

무주군, 과수 저온피해 예방제 지원 등 4개 신규 사업 발굴

무주군은 올해 4개 신규 사업을 비롯해 총 14종의 원예특작 분야 군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작년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종 4개 분야에 신규 사업을 발굴, 올해부터 착수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이 대상이다.

올 들어 새롭게 지원하는 분야는 과수 저온피해 예방제 지원, 복분자(지구, 관수, 차광망) 및 깻잎(해가림시설) 재배시설 지원, 복숭아 보조자주대 지원 사업이다. 2022년도 원예특작 분야에서 무주군 자체 지원 사업으로 14종, 27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분야별 30%~50%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읍면에 배포한 농업분야 주요사업 안내 책자를 통해 확인하거나, 무주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또는 해당 읍면 산업팀에 문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무주군 원예특작 분야 자체 사업은 28일까지 신청·접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2월중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농가가 필요한 농작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김현수 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원예특작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가들이 농업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전북형 청년수당 받을 청년 모집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참여해 전북형 청년수당을 지원 받게 될 청년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비해 모집 인원과 지원 범위를 확대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2개월 간 월 30만원씩 수당(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2.1.1. ~ 2003.12.31.)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수, 연구소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1차 일자리창출 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2022 1차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교육기관을 선정했다. 그 결과 전주기독교대학 산학협력단이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전대는 2년 동안 18명의 청년일지라에 대해 ▲4개 유형의 사업관리(지역정착일지라(대상: 농업법인), 지역혁신형 지원사업(대상: 지역특화산업기업), 상생기반대응형 지원사업(대상: 예비·신규창업가), 지역포용형 지원사업(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인건비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 ▲역량강화 직무·심화교육 ▲사업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청년의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을 지원하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수행 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산림강군 구현

진안군, 군민 상생 임업 삶의 질 향상 산림 휴양·치유 목표

진안군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산림강군을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군은 '군민과 상생하는 임업, 삶의 질을 높이는 산림 휴양·치유'를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산림 사업에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조림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밑거름이 될 동시 산림기계의 질 제고를 위한 생육 단계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피해의 주변인 산물과 주요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해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며 선제적 방제시스템을 구축·시행하며, 부귀산 등 주요 등산로의 노선을 정비하고, 산림욕장의 편의시설을 보완해 깨끗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내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도심권 가로수 식재, 도시 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스마트 가든별 설치를 활성화해 명품 생활복지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욱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추진해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약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림강군"이라며 "돈이 되는 산림 환경 조성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로 완벽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우태민 기자

설명절 맞아 장수 곳곳에서 이웃사랑 이어져

설 명절을 앞두고 장수군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계면에 따르면 지난 24일 의용소방대(대장 김재문, 최정애)가 장계면 사무소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을 기탁한 장계면 의용소방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웃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 성금 기탁을 통해서 앞으로도 나눔 실천을 위해 더욱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방문한 강남식 씨는 지난 연말에 이어 올해도 성금 10만 원을 기탁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5일에는 계남면 의용소방대(대장 최낙원, 이화림)가 계남면사무소를 찾아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최낙원 대장은 "이웃돕기 성금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업무뿐만 아니라 관내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산서면에서는 산서교회(목사 신동실)가 산서면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신동실 목사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마을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 대상 마을은 참 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6개 마을과, 3단계인 으뜸마을가꾸기사업 3개마을, 그리고 오는 2월 1단계인 그린별리지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12개 마을이다.

군은 기존에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마을별로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해 1단계 그린별리지 사

업부터 5단계 종합개발사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우수사업지구들이 차년도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2022년도에는 2단계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에 6개마을(학전3동·연구2동, 동향면 호천, 마령면 석교, 부귀면 원두남, 주천면 하양평)과 3단계 으뜸마을가꾸기사업에 3개마을(석곡, 백운면 원동창, 주천면 상양평)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오는 28일까지 현장설명회를 마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마을사업과 진행 일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